북 콘서트 열고… 5·18묘지 참배하고…

민주통합당 당권주자들 호남 러시

한명숙·김태랑·이종걸·박지원 지지 호소
이인영·김부겸·우제창도 잇단 출마 선언

민주통합당 지도부 출마를 선언한 당권 주자들이 광주·전남지역 표밭을 다지기에 나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전당대회에 대한 관심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당권주자들이 일단 중앙정치와 거리를 두고 있는 지역을 공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명숙 전 총리는 21일 순천과 광주를 방문해 '북 콘서트'를 열고, 여수에서는 한명숙 서포터즈 전남본부 출정식에 참여했다. 민주통합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지역민의 표심을 달래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김태랑 상임고문은 지난 20일부터 사흘간의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전북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김 고문은 중앙위원인 각 자치단체장들을 직접 만나, 출마 배경을 설명한 뒤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고문은 "최고위원 회의 중 80% 이상이 당무 행정인데, 출마자 중 당무를 잘 아는 전문가가 없다"며"민주통합당의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서는 당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당내 진보노선의 최전선에 있는 이종걸 의원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인 광주 5·18 묘지를 방문해 민주화 열사, 고(故) 리영희 선생의 묘지 등을 참배했다. 지역주의 타파를 내걸고 대구 출마를 선언한 김부겸 의원도 22일 광주를 찾아 중앙위원 등을 만나고 지지세를 넓힐 계획이다.

예비경선(26일)을 닷새 앞두고 전당대회 출마선언도 이어졌다.

이인영 전 최고위원은 '젊은 정당, 젊은 대표'를, 김부겸 의원은 '기득권 내려놓기'를, 우제창 의원은 '중소기업, 노동자, 청년 등 잊혀진 사람을 위하여'를 핵심 메시지로 제시하며 출마를 선언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김대중 정부 시절 김 위원장을 수차례 만난 경험을 내세우며, 남북 긴장관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여투쟁의 선봉에 설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후보자 등록을 마친 박용진 전 진보신당 부대표는 22일 오후 출마선언을 할 계획이고, 이강래 전 원내대표는 23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24일 출마선언을 한다. 박영선 정책위의장과 정균환 정대철 상임고문은 출마 여부를 놓고 막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보들간 신경전도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주된 공격은 선두권으로 분류되는 한명숙·박지원 후보에게 집중되는 양상이다. 여타 후보들이 60대 후반인 두 후보를 겨냥해 세대교체론을 꺼내들고 난타전을 벌일 태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나선 한명숙 전 총리가 21일 순천에서 열린 북 콘서트에 참석,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안보라인 전면 교체하라"

민주통합당

민주통합당은 21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과 관련해 정보외교 안보라인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원세훈 국정원장이 전날 정보위에서 "김 위원장이 룡성역 대기 열차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북한의 발표내용과 다른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정치적 의도가 깃든 '정보 장난'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민주통합당 이용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에서 "국정원장은 공식 발표까지 아무 낌새도 못 채는 정보 부재 능력을 보였다"면서 "그럼에도 반성은커녕 근거 없는 내용으로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는 돌출발언을 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질타했다.

최재성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정부의 정보수집능력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면피하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정보를 만져서 선거국면까지 끌고 가려는 매파들의 준동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명박 대통령은 정보라인을 교체하고 국민에게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정보를 만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오종식 대변인도 "국정원장이 증거도 불확실한 발언으로 논란을 유발하고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라며 "국가안보위기 상황에 총체적 무능과 국민 불안을 초래한 책임을 물어 외교안보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박근혜 "내주 초 비대위 구성"

당 쇄신 가늠 비대위원 인선 주목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21일 비대위원 구성 시점이 내주 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구성 시기와 관련, "내주 초쯤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인선에 대해서는 "아직 (인선이) 완결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석인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 당직 인선에 대해서도 "나중에…"라며 "이렇게 갑자기 비상시국이 돼서 많은 게 뒤로 미뤄지고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에 거론되는 비대위원과 당직자 후보에 대해선 "발표되고 하면 소설을 못 쓰니까 맘껏 쓰세요. 지금건 오보도 아닙니다"라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비대위원 인선은 박 전 대표의 첫 공개 인사인데다, 당 쇄신의 향배를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여서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박 비대위원장은 당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외부인사 영입을 위해 비대위원 후보자들과 접촉하며 비대위 구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與 '함께 내일로' 해체
친이-친박 계파 소멸

한나라당 친이계(친이명박)를 대표하는 의원 모임인 '함께 내일로'가 21일 사실상 해체했다.

이는 그동안 와해한 친이계의 사실상 소멸을 뜻한다.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10명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회동, 모임을 해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함께 내일로' 운영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은 이날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계파에 구애받지 말고 활동하기를 바란다는 취지에서 이번 연말 모임 활동을 종료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與 "조기경보기 등 예산 증액해야"
野 "대학 등록금 예산 2조 늘려야"

여야, 국방·복지예산 힘겨루기

국회 예산심사가 21일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여야가 국방·정보 등 쟁점 예산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계수조정소위를 열어 이틀째 감액심사를 이어갔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국방위 소관 ▲제주해군기지(1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공격헬기 도입(153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 등의 사업에 대해 감액 의견을 냈다.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전력증강 사업 예산을 줄여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2조원 증액하고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방예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구상찬 의원은 "독도와 연평도 방어전력, 해군 경비함, 조기경보기 등 국방 전력향상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한나라당 예결위원들도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850억원) ▲K-2 전차 전력화(466억원)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후속양산(1000억원) 등에 대한 증액 의견을 내놓은 상태다.

대북 정보력 부재를 보인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놓고도 이견이 나타났다.

예결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이날 "국정원 예산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5000억원, 예비비 3000억원, 여기에 각 부처 곳곳에 숨어 있는 예산까지 포함하면 총 1조원에 이른다"며 "시급히 국정감사와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삭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가 끝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이관되며, 지금까지 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정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도 "국정원 예산은 충분하다. 잘못 쓰이고 있어 (대북 정보력이) 취약한 것"이라며 "예산안이 연내 통과되기 전에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예산심사에는 언제든 응할 수 있지만 김 위원장 사망 사태에 대응해야 하는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임현모 전 총장, 북구갑 출마선언

임현모 전 광주교육대학교 총장은 21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총장 등 30여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요구하는 민주·인권·문화·교육도시가 자리 매김 하도록 하겠다"며 광주 북구갑 출마를 선언했다.

임 전 총장은 "광주 북구 갑은 특정 정치인으로 인한 권위주의, 일방적 불통주의, 폭력과 부도덕한 이미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낙후되고 불통으로 민주주의가 상실된 북구를 명품 북구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임 전 총장은 이어 "국가적으로 통일한국을 지향하며, 교육복지와 개혁을 실천하고, 양극화 해소와 서민경제를 활성화시켜 민주시민의 꿈이 현실화되는 사회, 지역유권자들의 뜻이 받들어지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통합진보당 전남도당 창당

통합진보당 전남도당이 21일 창당됐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순천시 장천동 전남도당 사무실에서 창당 선포식을 하고 문경식, 강용주, 최만원씨를 도당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전남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새로운 결의의 마음을 모아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새진보통합연대가 하나가 됐다"며 "통합진보당을 바탕으로 정치를 확 바꿔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존중받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통합진보당은 내달 7일 전남도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다.

전남도선관위, 불우시설 봉사활동

전남도 선관위는 6일부터 11일간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군 소재 '샤론의 집' 등 10여곳의 불우시설을 방문, 위문금품 전달과 김장돕기, 시설 청소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은 지난 2008년 전남선관위 직원들로 구성된 '1390 행복봉사단'이 참여했다. 1390은 선거법 콜센터 신고·제보 전화번호 1390을 뜻한다.

한편, 전남 선관위는 이번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지난 1월부터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갹출하는 방법으로 지정기부금 900여만원을 적립해 행사를 지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4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1타경17821	1	동구 산수동 25 1동 5층 511호 59.49㎡[토지별도등기있음]	아파트	52,000,000 52,000,000	
2011타경21363	1	서구 치평동 1166-2 대우금호아파트 102동 19층 1904호 59.94㎡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1타경21769	1	북구 삼각동 507-9 3층 301호 84.63㎡[토지별도등기있음]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1타경24751	1	남구 봉선동 23-3 303동 3층 305호 84.73㎡	아파트	135,000,000 135,000,000	
2011타경26924	1	광산구 도산동 1136-1 호반아파트 101동 1층 116호 59.95㎡	아파트	80,000,000 80,000,000	2011타경34222[중복]
2011타경27293	1	서구 화정동 1062 신동아아파트 103동 14층 1408호 84.94㎡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1타경27446	1	북구 매곡동 214-1 1동 5층 503호 59.31㎡	아파트	70,000,000 70,000,000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1타경25587 2011타경26993[중복]	1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666-6 104㎡	대	9,811,840 9,811,840	일괄매각.공유자우선매수행사횟수는1회로제한.공유자박훈용지분13분의2전부
		동소 666-12 205㎡	대		
		동소 666-6 101.6㎡ 제시외 주택 등 13.51㎡[제시외건물포함매각]	농가주택		
2011타경28036	1	서구 화정동 334-36 151㎡	대	119,724,840 119,724,84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334-36 1층77.31㎡ 2층66.28㎡ 부속건물 변소0.81㎡ 제시외주택일부 등16.4㎡	단독주택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11타경20995	1	동구 산수동 426-35 채림빌라비 4층 402호 33.17㎡[토지별도등기있음]	다세대	38,000,000 38,000,000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대지/임야/전답]					
2011타경20346	1	북구 동림동 205-1 440㎡	전	75,240,000 75,240,000	
2011타경22922	1	곡성군 목사동면 용봉리 778 2625㎡	답	26,250,000 26,250,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1타경23604	1	화순군 이양면 옥리 산40-2 5950㎡	임야	3,867,500 3,867,500	
2011타경24171	1	광산구 내산동 307 675㎡[공유자서길남지분3분의1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지상소재분묘를위한분묘기지권성립여지있음]	전	2,925,000 2,925,000	공유자의우선매수행사횟수는1회로제한
2011타경26375	1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212-2 479㎡	전	69,960,000 69,960,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213-2 2701㎡	답		
2011타경26528	1	영광군 군남면 반안리 361 89㎡	답	84,081,800 84,081,8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368 929㎡	답		
		동소 369 205㎡	답		
		동소 384 5134㎡	답		
		동소 385 304㎡	답		
		동소 386 119㎡	답		
		동소 389 3574㎡	답		
	2	영광군 염산면 상계리 1466-5 2399.5㎡	답	71,373,600 71,373,6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466-6 2679.7㎡	답		
		동소 1466-7 2678.8㎡	답		
	3	동소 1462-5 2155.8㎡	답	21,558,000 21,558,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4	동소 1463-4 1880.5㎡	답	28,067,520 28,067,52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463-5 1043.2㎡	답		
	5	동소 1461-2 1382.3㎡	답	36,239,040 36,239,04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
		동소 1461-3 2392.6㎡	답		
2011타경27569	1	서구 화정동 73-29 707㎡	전	171,094,000 171,094,000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1타경23857	1	북구 두암동 326-9 144㎡	전	372,733,320 372,733,3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
		동소 326-8 99㎡	대		
		동소 326-8 1층 144.38㎡[일용품소매점] 2층 116.72㎡ 3층 83.19㎡[2~3층주택] 지하1층 148.68㎡[수퍼마켓] 부속건물 0.9㎡[변소] 제시외 다용도실 등 86.3㎡	근린시설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단위:원]	비고
2011타경25303	1	동구 수기동 23-2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 1동 14층 1409호 29.67㎡	오피스텔	48,000,000 48,000,000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기일 : 2012. 1. 5. [목]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2. 1. 12. [목]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1. 12. 22.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필